



신한은행, IB+PB 신한PWM PIB 센터 2호점 오픈
 신한은행은 고자산 기업 고객에 대상으로 신사업모델인 PIB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한PWM PIB센터 2호점을 개점했다. PIB란 PB(Private Banking)와 IB(Investment Banking)가 결합된 용어다.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와 기업금융, IB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모델이다. 신한은행 신연식 기업그룹장(왼쪽에서 두번째), 정운진 GIB그룹장(세번째), 왕미화 WM그룹장(왼쪽 다섯번째), 배두원 IPS그룹장(여섯번째), 신한금융투자 김종욱 부사장(왼쪽 첫번째)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LH, 제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더스마티움에서 '제1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제품 서비스 개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3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공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장충모 LH경영혁신본부장(뒷줄 왼쪽 여섯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기보, 케이뱅크와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맞손
 기술보증기금이 케이뱅크와 '디지털·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전문기관 기보와 최근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면서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케이뱅크가 기업대출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왼쪽부터)정윤모 기보 이사장과 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달 31일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하이트진로, 물놀이 사고 예방 국민안전캠페인 전개
 하이트진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소방본부와 함께 국민안전캠페인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구명조끼, 레스큐 튜브, 레쉬가드 등 총 1000개 물품을 충남, 부산, 강원도 소방본부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충남 보령시 대천수욕장 119해변구조대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와 충남소방본부 순정호 본부장, 방상천 보령소방서 서장, 시민수상 구조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순천향대 1학기 등록금 10% '특별장학금'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달 31일 오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실납입 수업료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수혜 대상은 약

8000여명의 재학생이 해당되며 개인별 10%로써 전체 장학금액은 약 25억 200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는 지난 1학기 등록한 재학생을 기준으로 계열별로는 최대 약 34~50만원선의 금액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lhj@

1인 회사 주총결의에 관한 법리와 적용



김다연 변호사의
 진정한 회사법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가?

회사의 지분 전체가 한 사람의 사원이나 주주에 의해 소유되면, 이를 1인 회사라고 한다.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상 규정은 1인 회사에 곧바로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에는 적용돼야 할 필요가 낮을 수 있

다. 이에 판례는 1인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없다.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결의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해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위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그 주주총회가 상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는 주주총회결의로

서 유효하다는 법리를 1인 회사에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1인 회사의 법리는 반드시 1인 회사에만 적용된다. 판례는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라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 바른

ILO 협약을 씹어먹는 軍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사적활동 시간도 부족한데, 무턱대고 대민지원을 내 보낼 수도 없고, 언론홍보로 장병들의 희생을 통친다는 것도 '개발도상국적 발상'이다.

최근들어, 전역을 미뤘던가 전역 전 휴가 등을 반납하고 훈련과 경계작전에 자진해 투입했다는 미담기사도 많이 보인다. 헌신을 해준 장병들이 너무나 고맙다, 그렇지만 군 당국과 정부에는 '분노'가 끓어 오른다. 장병의 헌신이나 오기 전에 군 당국과 정부는 원활한 인원충원과 임무보장여건을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 먼저다. 입으로 공치사는 아무나 할수 있다.

직업군인의 노동가치도 무시해선 안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군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군의 경우 출항이후 함상 생활은 사실상 24시간이 복무시간이다. 수주 수개월을 망망대해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해야하는데, 현재도 충분치 않은 시간외 수당을 월 68시간에서 38시간(지상근무자는 28시간)으로 줄인다고 한다.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면서도 군 당국과 정부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콩나물값 깎고 밥대신 라면먹으며 명

품을 사겠다는 철부지와 뭐가 다른가. ILO협약을 씹어먹겠다는 것인가.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가치도 명확하지 않고, 현재도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기지 등의 인프라는 갈아뭇개고 도입하는 무기가 제대로 운영될까. 무기도 사람이 움직이고 송고한 군인들의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

짜퉁 중급제 보급품, 군사적 가치보다 무리한 국산화 이런 폐해는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더 많은 시민을 구하고 한치의 영토를 더 지키겠다고 귀한 노동력을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언제까지 가혹한 '공노비'를 강요할 것인가. ILO 100·101호 협약의 균등노동에도 위반되지 않나.

윗선에 계신 높은 군인들을 제외하고, 야전의 군초들은 자신들의 부당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 타 직종과 달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없는 직종이다. 정부가 앞으로 비준을 해야하는 ILO 협약 중 151호는 기밀업무(국정원 등) 등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공노동자임을 이유로 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를 우리 안보상황에 맞게 조정해 비준하더라도 정부는 군초들의 노동가치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captin@metroseoul.co.kr

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용 △ 기획운영이사 허대만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서효원 ◇ 과장급 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과장 이상규 ◇ 과장급 전보 △ 대전인성제출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장 강금춘

◆교육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최성부 ◇ 부이사관 지원 근무해제 △ 홍보담당관 임용빈 ◇ 서기관 파견복귀 △ 고등교육정책실 하진혜

부음

▲김연학(청주순복음교회 장로)씨 별세, 김미화·김현수(충북고 총동문회장·영광식품 대표이사)·김영숙·김동수(트리엠대표이사)씨 부친상 = 2일 낮 12시47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43-269-7211 ▲김종록씨 별세, 구자민(종근당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 담당 상무)씨 장인상 = 1일, 고양명지병원 장례식장 특9호, 발인 3일 오전 10시 30분. 031-810-5444 ▲조영숙씨 별세, 강남선씨 부인상, 강준환 한국경제신문 인천취재부장·강윤화·강문호(태양금속 품질경영팀장)씨 모친상 = 1일 오후 5시 55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30분. 032-890-3192